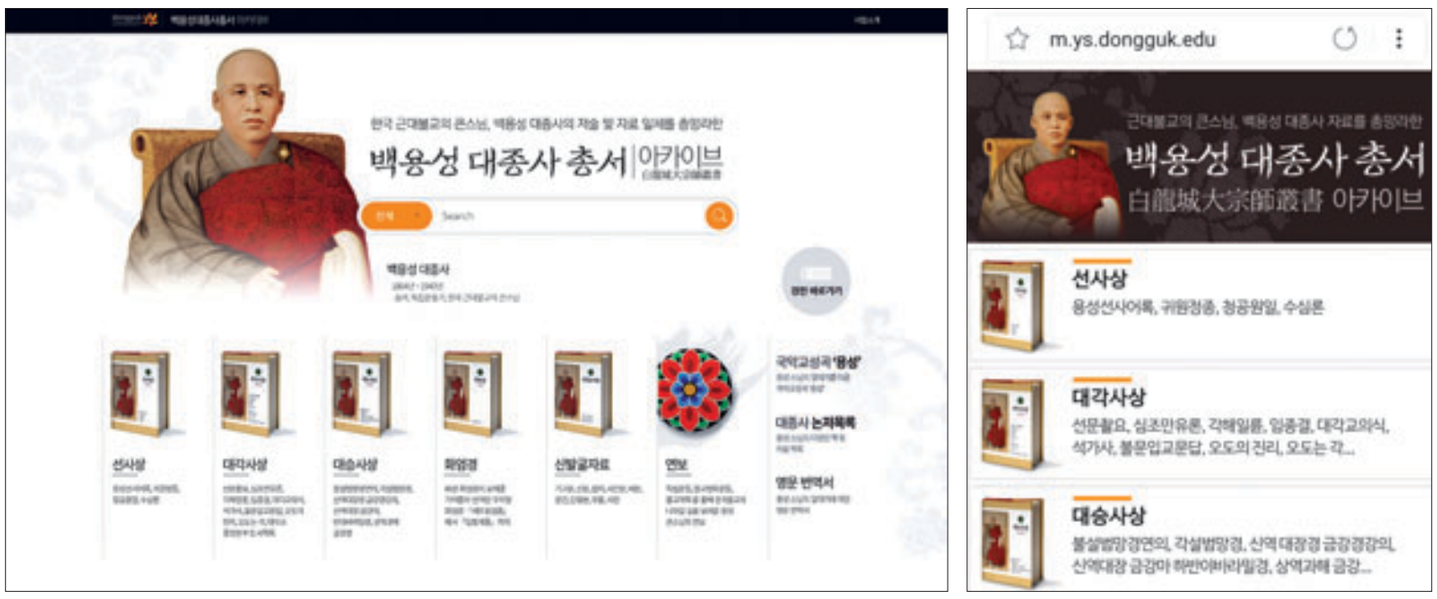
백용성 스님 모든 것 디지털로 만난다

대각회, 4월 5일 총서 전산화 보고회

2013~17년까지 5개년 추진
작년 발간 총서 모두 수록해
PC · 모바일서 이용 가능 '눈길'
백용성 총서 E-Book 개발도
'총서-아카이브' 문헌 집성 모델



'백용성 총서 아카이브 시스템' PC버전(사진 왼쪽)과 모바일 버전(사진 오른쪽)의 메인 화면. 백용성 총서를 디지털에서 쉽게 만날 수 있게 됐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3.1 운동을 주도한 민족대표 33인이자 한국불교 근대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선지식인 백용성 스님(1864~1940)의 저서와 관련 자료들을 모두 디지털로 만날 수 있게 된다.

(재)조계종 대각회(이사장 혜총)는 오는 4월 5일 오전 11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서 '백용성 대종사 총서 전산화 사업 결과보고회'를 개최한다.

백용성 대종사 총서 전산화 사업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이어졌던 대작 불사였다. 조사와 연구 · 개발 등은 대각사상연구원이 주도하고 동국대 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에서 협력했다.

이들 기관은 5년동안 기존 자료 분석과 신 자료 수집, 현대어 번역, 총서 발간 등의 사업을 진행했고, 이 과정서 백용성 스님의 기고문 · 서간문 등이 새로 발굴되기도 했다. 총서 발간 이후 최종적으로 모든 자료들을 데이터베이스(DB)화하고 디지털 아카이브 검색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지난해 총 20권으로 발간된 〈백용성 대종사 총서〉는 스님의 저서와 신발굴자료에 대한 현대어 해석, 그에 대한 영인본까지 전부 수록했다. 보고회를 통해 공개되는 아카이브 시스템은 총서를 PC와 모바일에서 모두 검색할 수 있도록 구축됐다. 또한 웹에 접속하지 않더라도 총서를 이용할 수 있는 E-Book도 개발됐다.

동국대 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가 발간한 학술지 〈전자불전〉 19집에 게재된 '백용성 대종사 총서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과 총서 사업의 완료' 보고에 따르면 총서는 목차 및 송서면순의 목록 화면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한 특정어를 검색하면 본문 전체와 레코드 단위로 검색 결과가 요약된다. 단락 보기 기능에서는 목차의 선택 및 이동, 글자 크기 조정, 인쇄, 각주보기 등 다양한 메뉴들이 탑재됐다. 통합 뷰어를 통해 원문과 번역문을 함께 볼 수도 있다.

타임라인 형식으로 구현된 '백용성 대종사 연보' 메뉴를 통해서는 선사의 생애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대각회의 전산화 사업은 한국불교 문헌 집성의 모델을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 불교 단체와 학술 연구기관이 협력해 자료를 수집해 이를 현대어로 번역해 총서를 발간하고, 최종적으로 디지털 아카브 시스템을 구축하는 첫 사례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동국대 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는 "한 시대를 대표했던 선지식의 사상을 대중과 공유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에 의미가 크다"면서 "단계적으로 실시한 자료 수집 · 번역, 총서 발간, 아카이브 구축이라는 과정은 역사적 인물 연구에 대한 '새로운 문화콘텐츠적 연구 모델'을 제시했다"고 자평했다.

한편, 전산화 사업 회향을 알리는 보고회에서는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의 축사를 비롯해 용성선사 소개 영상 상영, 아카이브 시스템 시연, 공로패 수여 등이 진행된다.

대각회 이사장 혜총 스님은 "한국불교 오랜 염원이었던 '백용성 대종사 총서 발간 및 전산화 사업'을 회향하게 됐다"면서 "보고회에 사부대중의 많은 관심 바란다"고 밝혔다.

기차로 떠나는 '봄꽃' 템플스테이

봄꽃이 만개하는 4월, 낭만 가득한 기차를 타고 봄꽃을 즐기며 템플스테이에서 심신을 달래는 관광상품이 개발됐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경)과 코레일관광개발은 4월 7일부터 22일까지 템플스테이와 지역관광자원을 연계한 '나를 찾아 떠나는 템플스테이 기차여행'을 시범운영한다. 사찰 접근성을 높이고, 템플스테이 운영사찰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문화를 조성하고자 기획된 이 시범사업에는 △구례 화엄사(4/7~8) △하동 쌍계사(4/7~8) △고창 선운사(4/14~15) △예산 수덕사(4/21~22) 등 4개 사찰이 참여한다.

웅장한 사찰 경내와 벚꽃을 즐기고 싶은 이라면 구례 화엄사로 떠나자. 이 코스는 화엄사 템플스테이와 섬진강 벚꽃축제가 특징이다. 화엄사 템플스테이는 '나를 꽃피우는 만다라 체험' '와선' '숲길 포행' 등을 체험할 수 있다.

또 다른 벚꽃 관광지로는 하동 쌍계사를 추천한다. 이 코스에서는 쌍계사 템플스테이와 벚꽃 명소인 십리벚꽃길을 중심으로 여행할 수 있다. 쌍계사서는 스님과의 차담, 108염주만들기 등의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조금은 색다른 청보리의 푸른 빛을 만끽하고 싶다면 고창으로 떠나자. 고창 선운사 코스는 내소사 탐방 후 선운사에서 템플스테이를 즐기고, 청보리밭을 둘러보는 일정으로 진행된다.

상세한 정보와 예약은 코레일 홈페이지(www.korailtravel.com)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능하다. 윤호섭 기자

[광고]

正統 養生學 古典
《삼원연수서》三元延壽書 강의
한의사 김재두

15 걸음과 서 있음. 行立。

○書云, 久行傷筋, 勞於肝°久立傷骨, 損於腎。
오래 걸으면 근(筋)이 상하여 간장(肝臟)을 노곤케 한다. 오래 서있으면 뼈를 상하여 신장(腎臟)에 손해를 끼친다.

○養生書云, 行不疾步, 立不至疲, 立勿背日。
양생서(養生書)에 이르기를, 빠르게 걷지 말고 ① 피로할 정도로 서있지 말며 태양을 등지고 서있지 말라. ②

○書云, 奔及走馬, 大動其氣, 氣逆於膈。未散而又飮水, 水搏於氣爲上逆。
달리는 말에 이를 만하게 빠르게 달리면 몸의 기(氣)가 크게 움직여 횡격막위로 솟아오른다. ③ 그 기(氣)가 흩어지지 않았는데 물을 마시면 물이 기(氣)를 때리게 되어 기(氣)가 위로 솟구친다.

○書云, 水有沙風處, 勿浴勿渡。當隨牛馬, 急渡之不傷人。水中又有水弩, 射人影卽死。以物打水, 令弩散急渡吉。
사풍(沙風)이 있는 강물, 바닷물에 목욕을 하지 말며 건너서도 안 된다. 우선 소, 말을 빠른 속도로 건너가게 하여 탈이 없으면 사람이 건너도 된다. 이유는 물속에 수노(水弩)가 있어 사람의 물에 비친 그림자에게만 그 독을 쏘아도 그 사람은 즉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손에 물건을 들고 물을 때려 수노를 흩어지게 한 후 급히 건너면 길하다. ④

○書云, 行汗勿跛床懸脚, 久成血痺, 足痛腰疼。
걸어서 땀이 났을 때 발을 상위에 높이 올려놓지 말라. 장시간 행하면 혈액이 통하지 못하여 발에 통증이 생기고 요통도 생긴다.

○眞人曰, 夜行常咳齒, 殺鬼邪。
진인(眞人)이 말하기를, "밤에 걸어 다닐 때 항상 치아를 부딪치면 귀사(鬼邪)를 죽일 수 있다." ⑤

○沈存中筆談云, 草間有黃花蜘蛛, 名天蛇。遭其[illegible]仍濡露, 則病如癩, 通身潰爛。露涉者愼之。
심존중(沈存中)의 《필담(筆談)》에 이르기를, 식물중의 누런 꽃에 사는 거미가 있는데 이름은 천사(天蛇)이다. 천사가 독충을 만나면 온몸에 진액을 흐르게 하여 자신을 보호한다. 사람 몸에 천사의 진액이 묻으면 온몸이 썩고 문드러져 진물이 흐르는데 증상이 나병(癩病)과 같다. 그러므로 풀 위에 이슬이 있으면 삼가며 지나가야 한다.

○書云, 大霧不宜遠行。行宜飮少酒, 以御霧[illegible]。昔有早行三人, 一食粥而病, 一空腹而死, 一飮酒而健, 酒能壯氣, [illegible]霧[illegible]也。
짙은 안개가 낀 날에 먼 길을 가는 것은 좋지 않다. 길을 떠나기 전에 술을 조금 마시면 안개로 인해 생기는 병을 예방할 수 있다. ⑥
옛적에 세 사람이 안개 낀 날 새벽에 길을 떠났는데, 떠나기 전에 아무것도 먹지 않은 사람은 중도(中途)에 죽고 죽을 먹은 사람은 병이 생겼으며 술을 먹은 사람은 건강하였다. 술은 능히 기(氣)를 장(壯)하게 하여 안개 때문에 생긴 병을 쳐부순 것이다.

註解

① 빠르게 걷지 말고 : 달리거나 빠르게 걷는 방법은 心肺와 근력을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으나 氣가 산란해져 호흡이 가빠지니 마음까지 불안정해진다. 氣功의 三大要素인 調身 · 調息 · 調心에 위배된다.

② 태양을 등지고 서있지 말라. : 인류최초의 자연숭배는 태양이었다. 古代人의 상식으로 인간을 존속케 하는 天地日月에 대해 몸을 향하지 않는 것은 마음도 향하지 않는 의미로 간주되었다.

③ 달리는 말에 ~ 위로 솟아오른다. : 行 · 住 · 坐 · 臥 · 語 · [illegible] · 動 · 靜, 언제나 마음은 下丹田을 의식하고 있어야 한다. 意守丹田하면 氣血이 안정되면서 水昇火降하여 마음까지 寂靜해진다. 동양의 모든 무술에서 수련과 실전 중에 意守丹田을 하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런데도 걷거나 달리는 중에 이어폰 음악을 듣거나 러닝머신 중에 T·V를 보는 행위는 더욱 氣血을 혼란시켜 유해하다. 이는 心 · 意 · 氣가 一致해야한다는 무술의 內三合의 原理에 어긋난다.

④ 사풍(沙風)이 있는 ~ 급히 건너면 길하다. : 原名은 [illegible]風 · [illegible]瘡이다. 寒冷한 水毒및 이에 의해 생기는 病症을 일컫는 용어이다. 風 · 寒 · 暑 · 濕 · 諸氣에 의해 多發하는데 반드시 紅[illegible]이 있으며 頭痛 · 發熱 · 神昏 · 痲痺 등을 수반하기도 한다. 쉽게 말하면 바다 · 강 · 습지 · 이상기후에 있는 水毒에 감염된 급성질환을 말한다. 醫書를 보면 오래된 우물, 閉[illegible]에 들어갔다가 가스 중독된 경우도 [illegible]風症의 범주이며 요즈음 거론되는 地下의 水脈도 사풍증의 원인이다. 최급악성의 紅[illegible]瘡인 경우는 죽기도 하는데도 의학계에서는 감기 · 몸살 · 급성피부염 · 심장마비로 오인하고 있다.

○역자가 단체관광을 가서 대형 방에서 잠을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 등이 가려워 보니 검붉게 불에 탄 것 같은 손바닥만 한 흉터가 생겨있었다. 그러나 방바닥은 입실 때부터 온기 하나 없는 냉방이었었다. 아래층으로 내려가 보니 역자가 잠잔 곳은 온천탕의 바로 위였다.

○역자의 知人은 건강한 30대인데도 어느 날 양수리강변에서 낚시를 하고 와서 3일 만에 죽었다.

○한 50대 낚시꾼은 북한강에 이르러 낚시하려고 앉았다가 1분도 못되어 온몸에 붉은 두드러기가 돋아 3개월 만에 겨우 나았다.

○8월 중순 이후 해수욕장에 다녀온 후 감기몸살로 백약이 무효인 사례를 수십 명 듣고 보아왔다.

○어느 가을 날, 역자가 지방에 출장을 갔었는데 그날 그 동네에만 가벼운 산들바람이 불었다. 그날부터 역자를 비롯한 그 동네 사람 모두가 심한 감기에 걸렸다. 이는 서해 혹은 남해 바다 속에 수만 년 잠복되었던 水毒이 氣流移動을 한 것이다. 이런 일은 기상청에서도 예보할 수 없고 오직 靈能과 易學으로만 예상할 수 있다. 그래서 한의학에는 醫易이라는 분야가 있어 東西古今과 과거 · 현재 · 미래의 天下 · 國家 · 지역 · 개인의 모든 질병을 推斷한다.

⑤ 밤에 걸어 ~ 죽일 수 있다. : 잡귀 · 鬼邪 · [illegible]魅[illegible]들은 금속성소리를 두려워한다. 승려가 錫杖을 집고 다닌다
거나 무당이 逐邪하기 위해 방울을 흔드는 것도 같은 의미이다.

⑥ 짙은 안개가 ~ 예방할 수 있다. : 역자는 본 구절을 1977년에 읽고 현재까지 金科玉條로 실천하고 있다. 비오는 날, 눈 오는 날, 추운 날, 沙風이 있는 바람 부는 날, 모두에 해당된다. 그러나 더운 날만은 예외이다.
1996년도 11월 중국 하얼빈에서 10일 동안 생활하였는데 매일 영하30℃ 가 넘는 혹한이 제일 견디기 어려웠다. 평소 음주하지 않았으나 이때만은 매일 고량주를 반 홉씩 먹음으로써 감기에 걸리지 않았다. 귀국을 하루 앞둔 날, 방심하여 음주하지 않았더니 당일로 감기에 걸려 여러 날 고생하였다. 서양의 민간요법으로, 감기에 독한 술을 마신다. 또한 서양인들은 등산 시에 필수적으로 술을 휴대하여 어떤 경우이든 몸에 이상이 있으면 남녀노소 누구나 마신다.

○술(酒) : 血脈을 通하고 적게 마시면 精神을 壯하게 하며 寒滯를 흩어버리며 瘀結을 열고 음식을 消化시키고 經絡을 流通케 한다. -《本草綱目》

※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언제든 연락 부탁드립니다. 031)771-2260

아름다운동행, 어려운 이웃 위한 8만 4천 결사 시작

3월 28일부터 8만 4천 정기후원자 모집



선포식에 참여한 84명의 결사위원이 결사리플렛을 들고 활발한 활동을 다짐했다.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설정, 조계종 총무원장)이 한 달에 7,000원 씩, 일년에 8만 4천원을 기부하는 기부결사를 시작했다.

8만 4천 결사는 올해 10주년을 맞이해 아름다운동행이 진행하는 캠페인으로서 점점 늘어나는 빈곤과 차별, 전쟁과 재난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한 달에 7,000원씩 모아 일년에 84,000원을 기부하는 것이다.

아름다운동행은 모연된 기금을 학교, 병원, 복지센터 건립과 불교시설 지원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2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에서 열린 결사 선포식에서 설정 스님은 "불교의 가르침 핵심은 바로 자비"라며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행보에 불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선포식에서는 발원문 낭독과 함께 84명의 결사위원들이 참여해 약정식을 갖기도 했다. (02)737-9595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BTN '불자들의 방송' 위한 봄 개편

4월 2일부터 단행…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마련

BTN불교TV(대표이사 구본일)가 2018년 새봄을 맞아 프로그램 개편을 오는 4월 2일부터 단행했다.

올해 방송 슬로건을 '불자들의 방송'으로 정한 BTN은 스스로 당당히 불자임을 밝힐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주는 교육과 다양한 사찰 순례 프로그램 등을 등을 대거 편성했다.

'내비둬 콘서트'로 대중화 소통했던 일감 스님이 진행하는 '만행(화14:30 · 20:30, 토14:30, 일10:00)'은 사찰 순례 프로그램으로 사람들이 사찰을 찾아 무엇을 얻고 내려놓고자 하는지를 알아보고 사람들에게 '마음을 쉬는 법'을 스님과 함께 탐구한다.

새로 편성된 '인연 그리고 법연(수 · 금 9:30 · 14:30, 일17:30)'은 불교계의 선지식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시봉했던 상좌스님과 제자스님들의 인터뷰를 통한 큰스님 회고 프로그램으로 은사스님과의 인연, 가르침, 수행담 등 대중들에게 미처 알려지지 않았던 이야기가 공개될 예정이다.

이진경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가 진행하는 '철학이 묻고 불교가 답하다(금13:00 · 22:00, 일1:00)'는 불교사상을 현대로 가져와 우리 삶 속에 투영해 봄으로써 21세기에 맞은 불교를 전한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도 시청자들을 찾아간다. 초기불교 전문 연구자인 각묵 스님의 '석가 세존의 근본교리(월14:30 · 19:30, 토17:30, 일7:00)'를 비롯해 △내 마음의 부처를 찾다, 목우자 수심결(화7:30 · 16:00, 금2:00, 일12:30) △'청운스님의 재가불자들을 위한 이뭣고 수행법(수7:30 · 16:00, 일11:30)' △'효범스님의 업경타파, 문이 열린다(금7:30 · 16:00, 일20:00) 등의 프로그램들이 새로 마련된다.

이밖에도 BTN에서 국내 최초로 선보였던 부처님 일대기 장편 드라마 '드라마 붓다'가 한글 자막 버전으로 다시 방영되며, 성철 스님의 육성법문을 복원 작업을 통해 다시 만나는 '산은 산 물은 물'도 만날 수 있다.

신성민 기자